

제목 : 67000원의 하루 -의미발견형

고등학교 때 타던 통학차 같은 걸 타고 어딘지 모를 곳에 왔다. 오늘의 하루는 67000원 포장알바다. 나는 계절학기를 들어야 해서 방학이 거의 한달이다. 알바를 구하긴 어렵고, 안 하자니 돈도 없고, 시간낭비 하는 것 같아 알바구인사이트를 뒤졌다. 우리집 근처엔 알바 하는 곳이 많았지만 장기알바 구인만 가득했고 차로 30분정도 떨어진 곳에는 단기 알바가 있었다. 그 중에서 단 하루만 할 수 있는 생산직 알바가 내 눈에 들어왔다.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보고 바로 문자로 지원을 했다. 1시간쯤 지나고 전화가 왔다. 내일 바로 출근해줄 수 있냐는 전화에 미끼를 덤석 문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다며 나를 어필했다.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집 근처 앞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끝났다. 너무 기쁜 맘에 가족들에게 자랑하며 남은 방학기간동안 해야 겠다며 떠들어 댔다. 그리고 난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을 청했다.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 하나 들고 통근버스를 타러 갔다. 저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줄 서있는게 보인다. 저들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하면서 줄을 섰다. 내 왼쪽 오른쪽에도 다른 회사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. 나도 나름 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나온 사람들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렇게 차를 타고 약 30분정도 가니 도착했다. 공장만 있었고 근처엔 나무와 숲이 무성했다. 9시간동안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해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왕 온 거 열심히 하고 가자며 나를 응원했다. 고등학교 때 급식실에서 봤던 급식이모들이 쓰셨던 위생모자를 쓰고, 투박한 조끼와 신발을 신고 일을 하러 갔다. 나는 처음 갔기 때문에 옆에 빠져 있었다. 마치 격리를 시켜 놓은 듯했다. 각 조마다 신입 알바를 한 명씩 꺼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듯 했다. 내가 간 파트는 다우니 포장일 일이었는데 마트에서 세트로 파는 다우니를 박스에 넣어서 이쁘게 포장하는 것이었다. 스티커를 붙이고, 큰 박스 안에 있는 다우니를 빼는 것에서부터, 포장박스를 조립하는 일, 다시 포장박스에 넣고, 포장박스를 닫는 일까지, 세세하게 분업화 되어있었다. 나는 처음에 포장박스를 조립했다. 나보다 한 10살정도 많은 언니가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딱 2번 알려주고 나보고 하라고 하셨다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여주셨던 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. 이거 몇 개를 찢은 거냐며 일 더럽게 못한다며 온 갖가지 욕이 쏟아져 나왔다. 그 쪽을 보니 내가 조립했던 박스가 찢어진 채 있었다. 조립할 때 요령이 있었는데 난 처음 해봐서 내가 보이지 않던 곳을 계속 찢어가고 있던 것이다.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지만 나에게 날라오는 것은 무서운 눈초리와 욕 뿐이었다. 공부하는 것이 쟈 쉽다는 부모님의 말이 오늘 만큼은 이해가 됐다.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 돈 좀 벌려고 오늘 하루 온 건데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조금은

쓱쓱했다. 그들을 원망하기보단 나보다 오랫동안 해온 일에 너무 지쳐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내 맘을 위로했다. 그렇게 일을 하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. 밥을 먹고 좀 쉬다 보니 다시 일할 시간이 왔다. 지금부터 약 5시간 후에 퇴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막막했다. 나에게 다음으로 주어진 일은 박스 파기였는데 박스 안에 있는 상품을 새로 포장할 수 있게 해 준 다음에 그 박스를 파기해서 얇게 쌓아 놓는 것이다. 약 10키로 정도되는 박스를 들었다 놔다 하니 내 팔이 사망한 것 같았다.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앞에 있었던 나와 같은 알바생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. 힘드시죠? 하며 좀만 버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날 위로할 줄은 몰랐다. 여기에 오면 사람 맘이 다 같지 못하다며 자기는 한달에 한 번정도만 가볍게 온다고 했다. 주변에 무표정으로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때문에 나도 그냥 묵묵히 내 일만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을 걸어 주셔서 고마웠다. 그 분과 얘기 나누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일 하다 보니 느리게만 갔던 시간은 제법 빨리 6시를 향해갔다. 5시 40분이 되자 청소를 시작했고,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수고의 인사를 나누었다. 불과 좀 전 까지만 해도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와 상냥한 인사가 오갔다. 물론 나도 그랬다. 지친 몸과 맘을 이끌며 통근버스에 올라탔다. 동시에 내 폰도 띠링하고 울렸다. 67000원이 내 계좌에 들어왔다는 알림이었다. 알바비가 들어오는게 반갑지 않은 적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. 그저 67000이라는 숫자에 불과했고, 돈의 가치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땀과 설움과 쓱쓱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. 난 아직도 마트에 가서 다우니를 보면 그때가 떠오른다.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우니는 많은 섬유유연제 속에서 화려한 포장지와 함께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며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, 사실 알고 보면 다우니 뒷면에 기재 되어있는 화학성분보다도 알 수 없는 이들의 노고가 더 많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른다.